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4일 월요일 음 3월 18일 (10월)

백록담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2°C, 낮 최고기온은 17-18°C로 예상된다. 자외선이 강하겠으며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 오전 | 강수 확률 | 오후 |
|-----|-------|-----|
| 60% | 제주 | 10% |
| 10% | 성산 | 10% |
| 30% | 고산 | 10% |
| 10% | 서귀포 | 10% |

| | |
|-------------|-----------|
| 해돋이 05:43 | 달뜨기 21:59 |
| 해질 19:19 | 달진 06:48 |
| 물때 만조 00:03 | 간조 06:32 |
| 11:33 | 18:06 |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 | | |
|----|----|---------|
| 내일 | 맑음 | 10/19°C |
| 모레 | 맑음 | 11/21°C |

미세먼지 (PM10)

| |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초미세먼지 (PM2.5)

| |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월드뉴스

트럼프 “이란이 방금 보낸 제안 곧 검토”

수용엔 회의적 시각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현지시간)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이란의 제안 자체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란의 핵 보유나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AP 통신은 타스님 등 이란 매체를 인용,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개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미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9개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이라고 AP는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 마리아고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1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귤 신제품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 임대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분양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권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 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귤 ● 하골(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골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부미현

정치부장

충북 청주시가 반도체 업계 호황의 영향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4년간 1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남부 지방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이다.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한 해 발생하는 세수가 2000-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의 한 해 전체예산은 4조여원,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세수가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에 웃는 청주시

이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청주시는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청주 지역에서는 이 재원을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청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투자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매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성과가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다는 점은 놀랍고도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세수 확보는 청주시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요즘처럼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릴만한 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려운 시기에 청주시

와 같은 '대박'은 제주뿐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의 희망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 청주시처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유치는 제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에게 부담을 넘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제주 역시 청주시와 같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은 과한 기대일지도 모르겠다.

방법은 다르지만 최근 들어 지방 곳곳이 성장동력 발굴에 탄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이전하면서 지역 발전의 새 모멘텀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최대 선사인 HMM도 최근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 앞으로 부산은 수도권과 맞먹는 지역 최대 도시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전라북도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일대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 지역 역대 최대 단일 기업 투자 유치 성과다. 행정통합에 성공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앞으로 정부로부터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의 미래는 청주시처럼 밝다.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까. 전국 곳곳에서 지역 성장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고 있는 요즘 차기 도정 리더십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랜드 비전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열린마당

지역청년과 일자리, 마지막 한걸음 멘토링

요즘도 결핵이 있나요?



백혜원 K-water 제주지역협력본부 사원

일자리에는 있는데 왜 청년은 그 문을 넘지 못할까.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나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지원 기회는 늘었지만 합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여전히 약하다. 문제는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그 기회가 실제 준비로 얼마나 연결되느냐에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청년 잔존율이 높은 편임에도 일자리의 연결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한민국 대표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K-water는 지역 인재 채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6년 2월 제주고용센터와 대학 일자리센



강혜수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학과 주무관

터를 찾았다. 이후 취업설명회와 박람회 참여해 3월에 약 100여 명의 취업 준비생들과 만났다. 설명회는 활기차고 관심도 높았다. 행사 후에도 일부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해졌다. 관심은 있지만 준비로 이어지는 길은 여전히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취업의 성패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적용의 밀도에서 갈린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직무 이해 등 실전 준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노력은 분산되고 결과의 격차는 커진다. 올해는 마지막 한 걸음을 채우려 한다. 입사 1-2년 차 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 과정을 함께하며 합격까지 이어지는 길을 지원하고자 한다. 멘토링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주고용센터 및 도내 대학 홍보포스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 걸음이다.

대상으로 한 잠복 결핵검역 검진에 집중하고 있다. 잠복 결핵검역은 몸속에 결핵균이 있지만 아직 발병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력이 없는 '발병 전 단계'를 말한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필수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은 결핵 고위험군이다. 제주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상이 곧 보건소'라는 마음으로 대한결핵협회 검진 차량과 함께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검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만약 결핵이 확인된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완치할 수 있다. 결핵의 대표적인 신호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다. 가래, 발열, 수면 중 식은땀 등이 동반된다면 단순 감기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길 바란다.